

금요 양성 2025년 3월 21일 - 권고 10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 권고 10에 집중

<https://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saint/writings-of-francis/the-undated-writings/the-admonitions/148-fa-ed-1-page-132>

### [10. 육신의 제어]

<sup>1</sup> 죄를 지을 때나 해를 입을 때 자주 원수나 이웃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 3:12 창세 3:13 <sup>2</sup> 그러나 이래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누구나 그 원수, 즉 육체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sup>3</sup> 그러므로 자기의 지배 아래 넘겨진 그러한 원수를 항상 손아귀에 집어 넣고 그에게서 슬기롭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종은 복됩니다.” 마태 24:46 <sup>4</sup> 이렇게 하는 한,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그 어떤 원수도 그를 해칠 수 없기때문입니다.

### 회칙의 머리말에서

“그런데 회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지 않으며 악습과 죄악을 일삼고 욕정과 자기 육신의 나쁜 욕망을 좇아 다니며, 하느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속의 걱정과 살아갈 근심에 싸여 세상을 육적으로 섬기는 남녀 모든 사람들, 악마의 짓을 그대로 하고 악마의 자식들이 된(요한 8:41) 이들은 악마에게 붙들려 눈이 멀었습니다. 참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소경들이여, 그대들은 우리 원수들인 육신과 세속과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죄를 짓는 일은 육신에게 달콤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은 육신에 씁니다. 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악습과 죄악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마태 15:19, 마르코 7:21) 그리고 그대들은 이승에서도 내세에서도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오랫동안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속았습니다. 그대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모르고 있는 그 날과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쇠약해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결국 육신은 쓰디쓴 죽음을 당합니다.”

권고 10과 회칙의 머리말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서 발췌된 두 문단을 읽으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생각들을 저널에 적거나 소모임이나 다른 형제회원들과 나누어 보시오.

+ 요즈음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대답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야” 라든가,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하거나 가르쳐 준적이 없어” 라든가 “내가 생겨먹은게 그 모양이라 그래”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 권고 10에 나와 있는 주제로 프란시스 성인은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주고 계신지 설명해 보시오.

-- 이 충고에 대한 후속으로 회칙의 머리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유혹을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 프란치스칸 덕목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유혹을 피하게 해 줍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 자신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습니까?

+겸손을 구하는 기도로 이 묵상을 마무리 해 봅시다. <https://ascensionpress.com/pages/litany-of-humility?srsltid=AfmBOoq33XBUGsGwIET7ejM9j9GN6RrdnAALNDpYYvJabNPHcTW2jPP->